



세번째 이야기

Cafe 콜롬비아보다 더 진한 BEE ☕

박재현, 정은실(GMI 콜롬비아 선교사, 양재공동체)

7세 정도나 되었을까 하는 어린아이의 나이를 물어보니 15세였다. 엄마가 음식을 먹이지 않아 성장이 안 되었던 것이다.

18세의 잘 생긴 소년에게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겠구나?" 물었더니 졸업은 5년 뒤에 할 수 있다고 했다. 부모가 학교를 늦게 보내서 그렇다고 한다.

4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태양 아래 카리브 바닷가에 서서 주님께 기도했다. '이곳에서 제가 살아야 합니까?'... 아무도 없는 넓은 바닷가 모래를 건너서 나에게 다가오는 소년이 보였다. 어깨에는 과일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당연히 나에게 한 개라도 팔아보려고 오는 것일 것이다. 가까이 와서 내가 외국인인 것을 보고서는 실망스러운지 근처 그늘에 앉아 버렸다.

스페인어로 인사를 하고 나이를 물어보니 스페인어를 말하는 동양인이 신기한지 눈이 반짝거렸다. 사연인즉 흠머니가 있지만 어린 동생을 돌보느라 본인이 학교를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몇 시간 과일을 파는 것으로 온 가족이 먹고 산다는 것이다.





주님께선 이렇게 세 명의 아이를 만나게 하시며 나를 콜롬비아 리과히라 땅으로 부르셨다. 콜롬비아를 선택한 것은 원래 공산국 쿠바에 가고 싶었으나 동료 선교사가 그곳에 가고 싶다가에 인구대비 선교사가 가장 적은 나라 콜롬비아를 선택한 것이었다.

콜롬비아는 커피가 맛있는 나라이다. 그만큼 교회들도 빠르게 성장하는 영적 추수지역이다. 그러나 뭐든지 빠르게 성장하면 기초가 얽려되듯, 적지 않은 교회들이 성장을 위해서 축사와 예언을 유행처럼 사용한다. 그것을 비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과용하여 교회성장의 기술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예를 들자면, 금요 기도회 같은 평일집회 뿐만 아니라 주일예배 때도 온통 예언으로 설교를 대신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고, 작은 교회들 역시 이러한 숫자적 성장을 위한 유행에 현혹되어 가고 있다.

대안으로서 중남미의 독특한 문화를 볼 때 열정적인 찬양과 예언 그리고 축사집회를 비판하기보다는 효과적인 성경 말씀교육으로 신학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방법론적으로 볼 때 신학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선교지역의 특성상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고, 신학교를 마친 목회자들도 그 학문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교육하기 위한 BEE 성경연장교육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온누리 교회에서 수년 전 처음 BEE를 히브리서 특강과 마가복음으로 접했을 때, 해석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질문과 적용이 상당히 원색적인 것이 인상적 이었다. 해석은 각 권별로 이루어지므로 개론을 배우는 신학교의 M.Div 보다 심화적일 때가 많았고, 적용과 질문은 직선적이고 문자적 이었다. 이전의 다른 성경공부와는 무엇인가 상당히 다르다는 느낌에 BEE 홈페이지를 들락거리며 ‘전 과정을 어떻게 다 배울 방법이 없을까’ 여러번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BEE의 중심을 알게 된 것은, 작년 말 공동체 순장님께서 양재 토요 오전 기도회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나눠 주신 때였다. ‘봉사자도 아닌데 중보기도회에 왜 오라고 하시지...’ 하고 초청에 따라갔더니 그냥 성경공부 모임이 아니라 상당히 선교적인 선교단체라는 것을 알고서 깜짝 놀랐다.

대륙과 나라의 세미나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고 처음 온 저를 기쁘게 안아 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형제들의 말씀과 영혼구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을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동적인 시간을 가지게 됨이 감사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마게도냐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순종해 길을 바꾸었을 때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다. 콜롬비아에서 주님은 열성적인 현지인들을 만나게 하셨다. 땅을 내 놓을 테니 학교를 짓자는 사람, 아버지가 부족장이어서 어려움 없이 인디언 방문사역이 가능하다는 청년 목사, 자신의 차를 빌려 줄테니 언제든지 연락해 달라는 현지인 집사, 자신의 교회를 언제든지 사용하라는 담임목사 등... 40년 동안 외국인 선교사의 발길이 없던 그 곳에서 말씀을 갈급해 하는 그들과 함께 BEE 사역을 진행하고 싶다.



아침마다 맛있는 콜롬비아 커피를 마신다... 커피 향을 마신다... 그러나 BEE의 향기는 이 보다 더 진하고 맛있게... 이 땅 콜롬비아를 복음으로 풍성하게 되는 그 날을 꿈꾼다.

 기도제목

- 3월의 BEE 특별과정을 성실하게 예/복습으로 공부하도록
- 콜롬비아 수도와 지방의 두 곳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 사역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도록
- 길고 깊은 기도시간 중에 영혼을 사랑하며 성령의 능력이 사역에 나타나도록
- 건강과 안전
- 한국의 가정 일들이 효과적으로 잘 마무리 되도록



- **박재현**
침례신학대학교 MA 선교학 졸업
국제학교 교사
안산 M, 한터 봉사
- **정은실**
ESMOD SEOUL 졸업
의류회사 디자인 팀장
안산 M 봉사